

FDI 총회서 '한국어' 사용한다 세계치과연맹 이사회서 공식언어로 결정

한국어가 세계치과연맹(FDI) 공식언어로 지정됐다.

6월 1일 열린 FDI 이사회에서는 오는 9월 시드니 총회부터 윤희렬 FDI 차기회장의 임기 2년동안 기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등 5개 국어 외에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윤 FDI 차기회장이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성립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치과계의 위상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한결 드높이는 쾌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91차 FDI 총회 및 이사회는 한국어가 처음으로 공식언어로 사용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수 있게 됐다.

윤희렬 FDI 차기회장은 "1975년부터 총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한국어가 FDI 공식언어로 지정됨에 따라 'Korean

Luncheon' 개최, FDI 이사 선임, FDI 총회 한국 개최, FDI 회장 당선 등 당초에 목표했던 소망 중 이제 마지막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FDI 이사회에서는 총회에 상정될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관한 FDI 선언문'의 문안이 선정됐다.

이 선언문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없는 진료,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 건강 교육과 구강질환예방유지 등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에 대한 FDI의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선언문은 치협이 기초한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사 윤리규정'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윤 FDI 차기총재는 6월 18일 터키치과의사회 초청으로 출국, 23일 귀국했으며, 7월 16일에는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차기회장으로서 바쁜 일정을 앞두고 있다.

FDI 금연스티커 각 지부로 배포

세계치과연맹(FDI)이 배포한 금연스티커가 5월 20일 각 지부로 배포됐다.

이 스티커는 윤희렬 FDI 차기회장이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85회 세계치과대회에의 로고를 FDI본부로 가져가 금연스티커 제작에 인용, 탄생하게 됐다.

스티커는 FDI 본부에서 제작된 후 각 회원국에게 골고루 배포돼 금연운동에 대한 FDI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치협에도 5월 19일 약 6만여장의 스티커가 전달돼 현재 각 지부별로 배포한 상태다.

